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2월 1일 (제103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도전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주장한 '도전과 응전의 원리'.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적당한 도전이 있어야 발전한다는 것이다. 도전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의학이 발전했다. 북한의 도발과 도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이 있고, 일본의 수출제재로 인해 소재부품의 국산화에 주력하는 것처럼.

응전(應戰)이란 도전에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브닌나의 도전을 받은 한나, 첼의 자녀로서 정실 자녀들에게 도전을 받았던 입다 모두 도전에 따른 응전이 있었기에 성공한 것이다. 나 또한 교계의 도전을 받고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분발하여 세계교구를 이루었다.

어쩌면 '도전'이란 말은 '시련과 고통'과 동의어일지 모른다. 살다 보면 도전을 받는 일은 허다하다. 그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전받는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님은 도전이 없는 곳에는 발전은 없고 멸망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서식했던 새인데, 이 섬에는 도도새를 괴롭힐 만한 어떤 천적도 없었다. 숲은 울창하고 먹이마저 많아 도도새는 굳이 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날지 못하게 되었고, 후에 사 람들이 이 섬에 들어와 잡혀 멸종하게 된다. 성경도 말씀하신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 멸망이 임하는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리라'(살전5:3).

지금 고난 중에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 고뇌하고 발전하라는 뜻이다.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청신호이다. 그러니 절대 좌절하지 말라. 도전을 받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 당신도 그리하라.

네가 절박한 심정을 아느냐?

11월 마지막 주간인 25일부터 나흘 동안 추계산상집회가 장성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첫 시간, 단에 서신 목사님은 재킷을 벗고는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하셨다. 이유인즉 설교 제목에서 찾을 수 있었다. '네가 절박한 심정을 아느냐?' "나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안수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자고로 응답은 소망의 열도에 정비례하는 법,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대강은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사 역사하십니다."

오자 하나님의 사자가 결국 야곱을 축복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었습니다(창32:22~30).

하같이 본가에서 쫓겨나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자신의 처지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주려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성대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창21:14~18).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올 때까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단헛던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왕상18:19~46). 모세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군대

(사37:33~34), 그가 죽을병에 걸렸을 때에도 면벽하고 방성대곡하며 절실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수한을 15년 연장시켜주셨습니다(사38:5~8).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눅22:41~44). 나도 교단에서 제명되었을 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을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습니다.

병들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위축됐습니까? 국가의 문제가 있습니까? 절실히 기도하세요. 또한 세상의 일도 성공하려면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중학



2019 추계산상집회(11월 25일~28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집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며 쌓아올린 재물은 물론 가족들이 강을 건너갈 때 야곱은 정말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서 대신 축복을 받은 대가를 치러야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너무도 절실한지라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자에게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

가 쫓아올 때 절실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출14). 한나는 브닌나의 멸시에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담았던 태의 문을 열고 사무엘을 주셨고(삼상1),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하수에로를 감동시켜 풍전 등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냈으며(에4), 히스기야는 앗수르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야유를 퍼붓고 능욕의 서신까지 보낼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사 승리했고

교 시절, 목욕탕에 데리고 갔을 때 성공비결을 묻기에 탕 속에다 처박고 머리를 눌러버렸습니다. 녀석이 살려고 사력을 다해저를 밀어냅니다. 불같이 따지는 아들에게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처럼 모든 일에 사력을 다해라.'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놓고 절실하게, 사력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장장 4시간이 넘는 설교였다. 그리고 목사님은 병든 사람을 단에 올려 일일이 안수하셨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셨다. 이것이 목회 35년의 성공 노하우가 아닐까.

신묘수 전도사



기도원 대식당의 즐거운 점심시간



전영수 장로가 믿음으로 바친 벽돌



모든 병자들을 안수하며 귀신을 내어쫓으셨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2:23~25)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12월 22일이면 제가 목회를 한 지 꼭 35년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했냐고, 어떻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디었느냐고요. 그들의 질문에 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입니다.’ 35년 동안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오직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졌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기도하니 메추라기 떼가 날아들었고, 기도하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기도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저도 기도하니 저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사라졌고, 기도하니 성도들이 몰려왔고, 기도하니 제게 능력이 임했고, 기도하니 세계의 길이 열렸고, 기도하니 권력자와 지력자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요, 기도는 믿는 자들의 최고의 무기요, 하늘과 땅의 문제를 여는 만능키입니다(마16:19).

저는 기도하지 않은 목사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던 목사가 일이 많아서, 강의가 많아서, 심방이 많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더니 끝내 능력이 떠나고 목회마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울삼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고 삼니다(삼상12:23). 바쁠수록 기도해야지요. 광야에서 사람의 힘으로 메추라기를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사 메추라기를 떼로 보내주십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생명선이다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꿉니다.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는 분이시지만 눈물의 기도에는 약해지십니다. 한나의 태를 담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사 사무엘 같은 대단한 아들을 주셨습니다(삼상1:19).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곧 죽을 테니 유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돌아앉아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하셨고, 그 증거까지 보이셨습니다(사38:5).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에스더가 사촌 오라버니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왕 앞에 나가려할 때 그는 금식기도를 했습니다(에1). 당시에 왕명이 없으면 왕후는 왕의 곁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기도했기에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이 금홍을 내밀어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말살될 뻔한 민족을 구출하는 부림절의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성이 훼파되고 성벽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느1:5). 그는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총회장 이초석 목사

넷째,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에 ‘아니요’ 할 수 없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점차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미운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행7:59~60).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다섯째,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왕상3:7~9).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고 약속했습니다.

여섯째, 기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목회 초반부터 제게 집중적으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와 그 귀신의 정체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신문과 각종 매체를 통해 저를 모함하고 핍박했고, 만물의 찌꺼기로 전락시켰습니다. 한때 저도 신문사를 차려 맞대응하겠다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라. 너는 다만 선한 목자가 돼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야 할 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에 ‘아니요’ 할 수 없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점차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미운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행7:59~60).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넷째,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에 ‘아니요’ 할 수 없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점차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왔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미운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행7:59~60). 이것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로 말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막1:35)? 왜 일이 끝난 후에 기도하셨고, 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눅5:16)? 능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에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을까요? 천천만만입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하루 4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집회가 있으면 하루 7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해외집회에 나가면 집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침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일행인 한은택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호텔 바닥에 수건 두 장을 접어 깔고는 거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회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이유도 기도하라고 저 스스로를 옥죄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가 영적 호흡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호흡이 그친 자들이니 당연히 죽은 자이지요. 죽은 자들에게 꼬일 것은 악한 마귀와 귀신뿐입니다. 그것들의 밭이고, 그것들의 장난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 말을 하고, 시험에 들고, 미움과 시기와 분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습1:6).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고, 기도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장래 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도 통달하게 하십니다(고전2:10).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데 열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자원의 고갈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고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교회 문제로, 국가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사면초가인 분이 계십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고통 중에서, 흑암과 사망에서, 위경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평정케 하실 것이고, 하늘 문을 여사 만사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91:15).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너희는 나를 본받아 기도하는 종들이 되라

제31기 목사임직예배(11월 20일, KBS88체육관)

13명의 목사 임직자: 김강중, 김길성, 김원진, 백훈정, 유제권, 이광주, 이월드, 이현승, 장기백, 장용준, 전창훈, 최건수, 최택용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목사님은 13명의 목사 임직자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맹세시키셨다. 목사 임직자 모두 ‘아멘’으로 충성을 맹세했다. 7일간의 금식, 2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한 13명의 목사 후보생들은 11월 20일, 드디어 예수중심교단 제31기 목사로서 기름부음을 받았다.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수 위해 부름 받은 몸’이 된 것이다. 목사님은 이날 ‘너희는 나를 본받아 기도하는 종들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는 사도 바울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는 말이다. 나의 롤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묵회했다. 그리스도화(化), 성화(聖化)되려고 애썼다. 너희가 나를 본받는다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거짓을 버려라. 예수님은 오직 기도의 일생을 사셨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였고, 새벽기도와 산기도, 철야 기도를 습관화하신 분이다. 나 역시 예수님처럼 오직 기도로 35년 묵회 길을 왔다. 철산리에서 한 명을 놓고 시작할 때 단에서 학잠을 자며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다. 수없는 역경과 모함, 핍박 속

에서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기 때문이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물 없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터지게 하였고, 눈 덮인 산아에서 길 잃었을 때 발자국을 남겨 나를 인도하셨다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 모세를 보라.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었다. 오직 기도만 했단다. 사면초가인 홍해 앞에서도, 물이 없을 때도, 춤고 더울 때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도 모세가 한 것은 오직 기도였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단다. 기도하면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얽힌 것들이 풀리고, 천군과 천사를 부릴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쫓을 수 있단다. 기도가 부족하지? 그러면 모든 것에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 더욱이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불 꺼진 항구와 같지. 남을 비추기는커녕 자신의 앞도 철쭉같이 어둡지. 묵회는 세상 지식이 나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다. 무릎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 하라고 하신 것이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또한 거짓을 버려야 한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다. 깨끗하고 정직하면 어디 가나 몇몇하고 당당하단다. 혹 잘못을 했거든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야.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수 많이 했단다. 그때마다 나는 성도 앞에서 잘못을 시인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더라. 용감한 자는 소리나 벅벅 지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자란다. 둘째, 청결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 사람 앞에선 하나님 앞에선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깨끗하라는 거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뵈는 거야. 목사는 절대 세상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음담패설도 안 된다. 농담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온유한 자, 따뜻한 자가 되라. 양지에 꽃이 피는 거야. 부드럽고 따뜻하면 사람이 몰려든단다. 단에서야 하나님의 대언자로 엄정해야 하지만, 평상시에는 천정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자가 되어야 해. 셋째, 좋은 목사보다 분명한 목사가 돼라. 성도들이 두려워서 할 말 못 하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지 마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짚을 건 짚어줘야 한다. 잘못된 것이나 옳지 않은 일은 짚어줘야 할 의무가 목사에게 있단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 물러가라’ 하지 않았니? 고름이 살이 안 된단다. 행여 시험 들까봐, 교회 떠날까봐 말 못하는 자는 나중에 하나님께 물음을 받을 거다. 그리고 모든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여 공적으로 끝내라.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공의(公義)야. 유야무야해서는 안 돼. 성도에게 빌린 것은 갚아야지, 빌려놓고 나중에 현금한 셈 치라는 등 하면 안 된다. 넷째, 큰 자가 되려면 깨끗한 자가 돼라. 특히 돈, 명예, 여자(이성)에 조심해야 한다. 돈이 좋으면 목사 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돌아가. 세상 것에 아직 미련이 있으면 지금 돌아가라. 그게 차라리 낫다.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기도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받게 되어 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뿐 아니요 나무와 짚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2:20~21). 다섯째, 채찍에 맞을지언정 채찍질하지 마라. 목자 손에 있는 지팡이는 양을 이끌라고 준 것이지 양을 때리라고 준 것이 아니란다. 나를 채찍질해야지, 왜 성도들을 채찍질해? 비판을 받을지언정 비판하지 말고, 정죄를 당할지언정 정죄하지 마라. 여섯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많이 배

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 만나겠지. 그런데 그들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을뿐더러 그 사람으로 인해 울무에 걸리게 된다. 방백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야. 너희가 의지해야 할 분도, 두려워해야 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 번째, 사랑과 능력의 종이 되어 나보다 큰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스승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기쁜 거란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하신 것이다. 나도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일 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너희가 받지 마라.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 쫓겨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병 고치거나 안수하고 돈 받지 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다(고전13:1~3). 끝으로 교회는 음식점과 병원 같은 곳이다. 음식점은 맛과 환경과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 설교도 좋아야 하지만, 목사 인품도 좋아야 하고, 의사처럼 능력도 있어야 하지. 널린 게 음식점이고 병원이야. 갓출 것을 갓출 때 내 돈 내며 찾아오는 것 아니겠니? 교회도 많다. 영·혼·육에 완전을 기할 때 성도들이 몰려오는 거야. 나는 위에 열거한 원칙대로 살려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너희에게 어떤 세계가 열릴지 모른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때 감사해라. 그건 훈련이야. 사도 바울이 그냥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4:12), 곧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에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된 거란다. 부디 너희는 선한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란다.” 목사님은 35년 묵회에서 얻고 깨달은 산교훈을 진심을 다해 말씀하셨다. 선한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다. 그러나 샅꾼목자는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양떼를 몰라라 하고 줄행랑을 친다. 우리는 기도한다. 31기 목사 임직자들이 선한목자가 되기를! 이초석 목사님이 혼신을 다해 가르친 보람이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31기 목사들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기도한다.

신묘수 전도사
jesus7857@naver.com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제목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누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과

는 다른 맥락이다. 총회장님 말씀처럼 난 참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루살렘기도원을 향한 발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처음은 장순천 목사님의 주선으로 8월 여름산상집회 때였고, 이번은 목사 수련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닌지는 30년이 넘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신학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어언 18년을 넘어간다. 2002년 중국에서 신학을 마치고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바라보며 사람에게서 예수를 찾으려 여기저기 기웃기웃, 2005년 다시 한국에 들어와 서울 작은 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거의 안가본 곳 없이 찾아다녔으나 어떤 곳에서도 예수를 뵈은 목회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배워야 신학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역사하시는 참 예수, 진리를 알게 되었으나 자칫 또다시 진리를 아는, 즉 영의 세계를 아는 또 다른 종교인이 될 뻔한 막다른길 위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난해 우리 부부는 이 진리의 말

씀을 알지 못하는 옛 중국신학교 교우들에게 알리고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하나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세상 말로는 우연한 기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장순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름산상집회에 참석하게 되어 총회장 목사님까지 만나게 되었으며, 이번엔 또 이렇게 목사훈련까지 받게 되었다. 일주일 금식기간 동안 많은 것을 체험했다. 드디어 예수를 뵈은 목회자를 만났다. 여름산상집회 때도 느꼈던 바이지만 예수중심교회가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 때로는 엄하나 가까이에선 어버이마냥, 친구마냥 그토록 인자한 목회자를 만났다.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회자가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하는 데 어떻게 양 떼를 예수님이 계신 평안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말이 나올 뿐이다. 성도 주머니를 노리지 말고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이 내 귀를 마구 마구 때리고 내 마음을 후려친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무엇이 부족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기도가 부족하니 나 자신이 앞서고, 육신의 생각, 욕심, 타락된 생각들이 살아 상대의 마음을 갈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예수의 향기를 내야 할 내가 온갖 썩은 냄새만 풍

긴 것 아니겠는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목회를 하려거든 부모 형제자매 다 버려라! 육적으로 버리면 영적으로 다시 얻게 되리라! 좋은 사람이 되기에 앞서 분명한 사람이 되라!’ 수많은 주옥같은 깨달음의 말씀들이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번 훈련원에서 감사하게도 육체의 고침까지 받았다. 당뇨를 앓고 있었던 나는 몸이 약해져 다리에 힘이 없었으나 금식기간 중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았고, 근육이란 게 보이지 않을 만큼 뼈에 가죽만 붙은 것 같던 다리가 운동으로 다져진 것같이 튼튼한 다리가 되었다. 너무나 놀라웠다. 당뇨도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 전혀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당뇨의 모든 증세가 사라졌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남은 일은 건강한 몸으로 죽는 날까지 영혼구원을 위해 내 남은 생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뿐이다. 예루살렘기도원이 참으로 좋았다. 나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등불을 받은 곳이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생생한 산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나의 목회가 총회장 목사님을 뵈은 목회가 되기를 원한다. 엄하고 분명하나 아버이 같고 친구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회자, 소경이 아닌 분명히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앞으로 양 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중국 산둥성 최택용 목사

어머니

1960년대, 어머니는 가난한 3대 독자 아버지와 혼례를 올리셨다. 그 후 많은 토지를 사들이자 할아버지는 며느리가 잘 들어와 복을 받았다고 종종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드넓은 산지와 겨울엔 김 양식까지 사계절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다. 어머니는 작은 섬마을에서 유일하게 자식을 두 명이나 대학에 보낸 훌륭한 분이시며, 정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셨다. 어머니가 읍내 오일장을 다녀오시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그때마다 사랑과 옛 등을 꺼내 나눠주시곤 하셨다. 문맹이신 어머니는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구역에배도 자주 드렸고, 당시 거금을 구역에배헌금으로 내시는 모습도 보았다. 십수년이 지난 후 뇌병변으로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 휠체어에 의지해 교회 다니시는 게 유일한 외출이셨는데, 치매가 급격히 어머니를 덮쳐 점차 예수님도 잊어갔다. 그리고 모신지 5년 만에 소천하셨다. 당시 사경을 헤맬 때 손으로 허공을 내치며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를 쫓는 듯하셨다. 초신자로 성령 충만했던 나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거라 직감하고는 목사님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방언기도를 하며 귀신을 쫓았다. 이윽고 어머니 심장은 멈췄고, 육신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러나 나는 잊어버린 어머니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한 후 맥박은 돌아왔지만 동생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눈가에 굵은 눈물을 꺾전까지 주르르 흘러시고는 소천하셨다. ‘회개하시고 천국 가셨다.’ 치매로 인해 예수를 잊은 어머니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던 나에게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들며 평안이 물려왔다. 어린 시절, 동생은 어머니 오른팔, 나는 왼팔을 베개 삼고 누워서 서로 나만 쳐다보라며 사랑을 독차지하려던 나에게 인자하신 미소로 바라보시던 그 눈빛과 채취가 오늘은 더욱 그립다. 추성숙 집사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서두르는 나, 기다리라는 하나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이 인생이어서 많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타이밍’이다. 그렇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인생은 타이밍이지!’ 혹은 ‘한방이지!’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일을 겪고 여러 순간과 마주하게 될 때마다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거야, 대기업에 취업할 거야,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될 거야 등등. 필자는 늦게 공부를 시작했기에 석·박사과정에 대한 기한을 정해놓고 디테일한 계획 속에 기도하며 하나씩 실천해나갔다.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과정을 서둘러 마칠 수 있게 하였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도 주변 이들을 통해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다. 하지만 채용직의 내정자로 답을 받고 지원했던 대학의 교수직도, 발표 전날 최종합격 소식을 먼저 전해 들었지만, 발표 당일 불합격 소식을 접하게 된 광역단위 산하 정책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직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를 받아보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계획 하에 ‘내 인생 잘 돌아간다’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모든

상황이 ‘나의 때’라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경기도 한 지자체 연구원의 전문연구위원으로 하나님은 입사하게 하셨다. 2년 후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2년 전 내정자로 학답 받았지만 불합격했던 그 대학에 오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격했고, 지금은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중책인 산학협단/단 부단장을 임용 1년 만에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 직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안서를 쓰고, 지원받은 사업비로 학생들을 위한 사업추진과 평가가 주된 업무이다 보니 2년간의 연구원 경력이 크게 평가받은 것이다. 올 초,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내용에서 한참을 멈춰 생각에 잠긴 적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광야의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러다 눈에 들어온 성경구절이 신명기 8장 2~6절이다. 그리곤 알았다. 우리는 ‘굿 타이밍’을 명명할 때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시점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사건

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우리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과 소명을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궁극해 하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때)’은 언제일까? 하나님의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바탕 아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환경을, 사람을 보면서 묵묵히 나의 몫을 감당하며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갈렙처럼 꿈을 위해, 목표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마음속의 벽을 뛰어 넘는 것만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다. “My time is not yet here; for you any time will do.”(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